

2022년도 국가직 한국사(가책형)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③	④	①	②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③
11	12	13	14	15
①	④	①	②	①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②	④

1 - 초기 국가. 옥저

문 1.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②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③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 ④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초기 국가, 옥저의 '골장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역시 옥저의 장례 풍습이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②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던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③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던 나라는 삼한이다.
- ④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2 - 유네스코 세계 유산

문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 ②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③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 ④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정답> ③

(고구려 계통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은 한성 시대의 고분 양식으로, 서울의 석촌동 고분[2호분]이 대표적이다.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 시대의 고분으로 굴식 돌방무덤 양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 이 문제에서 가리키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있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이다. 2015년에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답 해설>

①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639, 백제 무왕 40)을 가리키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2009년 초 미륵사지 석탑 심초에서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로써 미륵사를 창건한 이가 무왕과 선화공주라고 기록한 『삼국유사』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참고로 백제 무왕의 왕후는 백제 귀족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다.

②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7세기 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은 전형적인 백제탑 형식이자 우리나라 석탑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다.

④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3 - 조선 시대의 관청

문 3. 조선 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간원 - 교지를 작성하였다.
- ② 한성부 -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 ③ 춘추관 -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 ④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정답> ④

승정원은 (일종의 왕의 비서 기관으로)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교지를 작성한 조선 시대의 관청은 예문관이다.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敎旨)를 작성하거나 회의록[史草]을 작성하였다.

② 시정기를 편찬한 조선 시대의 관청은 춘추관이다. 춘추관은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인 '등록'을 모아 해마다 시정기(時政記)를 편찬하고,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하였다.

③ 외교 문서를 작성한 조선 시대의 관청은 승문원이다.

4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문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 ①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②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 의군부를 만들었다.
- ③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④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정답> ①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19년 3·1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19.4.11).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1919.9).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② 비밀 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만든 것은 1912년 9월의 일이다.
- ③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 작전이 추진된 것은 1908년 1월의 일이다.
- ④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5 - 신라의 의상과 자장

문 5. 다음 (가), (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나)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①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 ② (가)는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 ③ (나)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④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시하였다.

정답> ②

(가)에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가리키는 승려는 신라의 (해동화엄시조)원교국사 의상(대사)(625~702)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 여왕에게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가리키는 승려는 신라의 자장(율사)(590~658)임을 알 수 있다. 자장이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것은 선덕 여왕 12년인 643년의 일이고, 황룡사 구층 목탑이 축조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646년(선덕 여왕 15)의 일이다.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든 이는 의상이다. 이를 통해 의상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한 승려는 신라의 화쟁국사 원효(617~686)이다.
- ③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긴 승려는 신라의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 ④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시한 승려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

6 - 발해 무왕

문 6.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高王)이라 하였다. 아들 (가)이/가 뒤이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

- 『신당서』 -

- 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 ②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 ③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
- ④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였다.

정답> ③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高王)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들 (가)이/가 뒤이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 대무예(재위 719-737)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무왕은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732, 무왕 14).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긴 왕은 (발해) 문왕 대흥무(재위 737-793, 제3대)이다(756, 문왕 20)*.

*발해의 첫 도읍지는 동모산(지린성 돈화시)이다. 무왕 시기(재위 719-737, 제2대)에 동모산에서 중경 현덕부(지린성 화룡현)로 처음 도읍을 옮겼고[문왕 시기(재위 737-793, 제3대)로 보는 설도 있음], 문왕 20년인 756년 경에 북쪽의 상경 용천부(헤이룽장성 영안현)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 그 후 문왕 49년인 785년경에 동경 용원부(지린성 훈춘시)로 다시 수도를 옮겼다가 성왕 대(재위 793-794, 제5대)에 상경 용천부로 '환도'하였다(793년으로 추정).

②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룬 왕은 (발해) 선왕 대인수(재위 818-830, 제10대)이다.

④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한 왕은 (발해) 고왕 대조영(재위 698-719)이다(698).

7 - 삼정이정청[조선 시대 법전의 편찬]

문 7. (가) ~ (라)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대에 그 편찬이 시작되어 (가) 대에 완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 대에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다) 대에 『대전통편』을, 그리고 (라) 대에는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 ① (가) -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하였다.
- ② (나) - 서원을 봉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하였다.
- ③ (다) -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 ④ (라) -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정답> ④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대에 그 편찬이 시작되어 (가) 대에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 대에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다) 대에 『대전통편』을, 그리고 (라) 대에는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국대전』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고, 『속대전』이 편찬된 것은 영조 22년인 1746년, 『대전통편』이 편찬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 『대전회통』이 편찬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것은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한 것은 성종 9년인 1478년의 일이다.

② 서원을 봉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한 것은 영조 17년인 1741년의 일이다.

③ 사도 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한 것은 정조 20년인 1796년의 일이다(1794.2~1796.9).

8 - 기묘사화

문 8.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은?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연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다.

- ① 갑자사화 ② 기묘사화
③ 무오사화 ④ 을사사화

정답> ②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3사의 연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도학 정치를 이루고자 급격한 개혁을 추구한 정암 조광조(1482~1519)가 제거된 사건은 기묘사화이다(1519, 중종 14).

오답 해설>

① 갑자사화가 일어난 것은 조선 연산군 10년인 1504년의 일이다. 연산군의 모친인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되어 일어났다.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폐비) 윤씨(?~1482)는 성종 10년인 1479년에 폐출되었다가 성종 13년인 1482년에 사사(賜死)되었다.

③ 무오사화가 일어난 것은 조선 연산군 4년인 1498년의 일이다. 김일손(1464~1498)과 같은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제자들[사림들]이 피해를 입었다.

④ 을사사화가 일어난 것은 조선 명종 원년인 1545년의 일이다. 명종의 외척인 소윤파에 의해 인조의 외척인 대윤파가 제거되었다.

9 - 삼국사기와 발해고

문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 옛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秦漢)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망연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고구려·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중략)...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

〔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① (가)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② (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하였다.
③ (나)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④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③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 옛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秦漢)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망연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고구려·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김부식(1075~1151)이 고려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편찬해 받치면서 올린 글이다(진삼국사기표). 따라서 '(가) 역사서'는 『삼국사기』를 가리킨다(1145, 고려 인종 23).

10 - 열하일기(한전제)

문 10.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토지를 검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 (중략) ...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부친다. 자손에게 분급해 주는 것은 허락한다. 만약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을 공포한 이후에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官)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라고 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전국의 토지 소유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 | | |
|--------|--------|
| ① 반계수록 | ② 성호사설 |
| ③ 열하일기 | ④ 목민심서 |

정답> ③

'토지를 검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부친다. 자손에게 분급해 주는 것은 허락한다. 만약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을 공포한 이후에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官)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라고 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전국의 토지 소유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농촌 문제의 핵심을 지주 전호제에 의한 토지 검병에 있다고 보고, 토지 검병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토지(소유) 상한선을 설정한 연암 박지원(1737~1806)의 한전론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위와 같이 법령 공포 후 상한선 이상을 구입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또 토지의 분할 상속을 허용하면 수십 년이 못 되어 나라 안의 토지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남북국', '남북국사'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 속 '(나) 역사서'는 영재 유득공(1748~1807)이 지은 『발해고』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784, 조선 정조 8).

『발해고』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는 이규보(1168~1241)이 저술한 동명왕편이다(1193, 고려 명종 23).

②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는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 저술한 『삼국유사』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④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서는 순암 안정복(1721~1791)이 저술한 『동사강목』이다(1778, 조선 정조 2). 고조선에서 고려 공양왕까지를 다루었으며, 정통 국가·정통 군주에 대해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즉 기자 조선과 마한, 통일 신라, 고려를 정통 국가로, 마한이 멸망한 뒤의 삼국 시대는 정통 국가가 없는 시대로 보았다.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1780년(정조 4)에 청 건
륭제의 칠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사행하는 삼종형을
수행하여 청 고종의 피서지인 열하를 여행하고, 돌
아온 여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연행일기이다.

오답 해설>

- ① 반계수록은 균전제 및 농촌 사회와 민생에 관련
된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반계 유형원
(1622~1673)의 저술이다(1670, 현종 11).
- ② 성호사설은 성호 이익(1681~1763)의 대표적 저
술이다. 평소에 기록해 둔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답
한 내용을 집안 조카들이 정리한 것이다(1740년경,
영조 16년경).
- ④ 목민심서는 지방관(수령)의 도리와 역할에 대해
논한 것으로,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저술이다
(1818, 순조 18).

11 - 1910년대의 사실(토지 조사령 공포)

문 11.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 정책을
전환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 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 시기라고 부른다.

- ①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 ② 창씨개명 조치가 시행되었다.
- ③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 ④ 전쟁 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었다.

정답> ①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
를 부여한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
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
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 정책
을 전환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
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 시기라고 부른다'는 내
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시
기'는 1910년대로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
함을 알 수 있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지 조사령이 공
포된 것은 1912년 8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창씨개명 조치가 시행된 것은 1940년 2월부터이
다. 1936년 6월 새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미나미
지호가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한국인의 황민화를 꾀
해 그 일환으로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
사령을 개정하여 창씨개명과 서양자제도를 신설하였
다.

③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이 (소학교에서) 국민학교
로 변경된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제3차 조선
교육령 일부 개정).

④ 전쟁 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 총동원법이
적용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

12 - 백범 김구(신탁 통치 반대 운동)

문 1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②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③ 무장 항일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였다.
-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정답> ④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그'는 백범 김구(1876~1949)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 독립당이 최초로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것은 1930년 1월이고, 한국 국민당이 결성된 것은 1935년 11월, 한국 독립당이 새롭게 결성된 것은 1940년 5월의 일이다. 그리고 김구가 우사 김규식(1881~1950)과 함께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은 1948년 4월의 일이다.

김구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1945.12~1946.1). 참고로 1945년 12월 28일 김구와 임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계 대표자들의 회합이 열리고,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여운형, 안재홍과 같은 중도파가 중심이 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1946년 10월의 일이다(1946.10.7).
- ② 광복 직후 (민세) 안재홍(1891~1965)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든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이다(1945.8.15).
- ③ 무장 항일 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한 인물은 우성 박용만(1881~1928)이다(1914.6).

13 - 제헌 국회

문 13. 제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 ③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정답> ①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치러진 '5·10 총선거' 실시 결과 구성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의회를 가리킨다. 개원 일자도 같은 해 5월 31일이었고, 제2대 국회가 국회 의장을 선거하기 전날인 1950년 6월 18일까지 존속하였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오답 해설>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1965년의 일이다. 한·일 양국이 한·일 기본 조약에 합의한 것은 1965년 2월 15일이고, 같은 해 4월 3일에는 '어업', '청구권',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각각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에 야당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하였고, 같은 해 6월 22일 한일 협정 정식 조인 이후까지 시위가 이어졌다(한일 협정 반대 운동).

③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발표된 것은 1972년 7월의 일이다.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비상 국무 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1972년 10월의 일이다(1972.10.27). 같은 해 10월 17일에 단행된 일어난 초헌법적 비상 조치(이른바 '10월 유신')로 말미암아 당시 국회는 해산되었다.

14 - 흥선 대원군(척화비)

문 14.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그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

- ① 미국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②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다.
- ③ 국경을 확정하고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④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정답> ②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그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신미양요 직후의 일이다(1871.5).

오답 해설>

- ① 미국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1883.7~1884.5)
- ③ 국경을 확정하고자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청의 목극동과 조선의 박권).
- ④ (개화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둔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15 - 고구려 장수왕 대의 사실

문 15.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 (중략) ...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쪼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 『삼국사기』 —

- ①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 ②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 ③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었다.
- ④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정답> ①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쪼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과 고구려 장수왕 대에 활약한 고구려 첩자인 '도림(?~?)'이라는 승려가 나온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이 왕'은 고구려의 제20대 왕 장수왕(재위 413-491)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한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고국천왕 16년인 194년의 일이다.
- ③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낸 것은 미천왕 14년인 313년의 일이다.
- ④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친 것은 광개토 대왕 10년(영락 10)인 400년의 일이다.

16 - 안동 봉정사 극락전

문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에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 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 ① 서울 흥인지문
- ② 안동 봉정사 극락전
- ③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④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정답> ②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에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 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가 가리키는 문화유산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임을 알 수 있다(13세기 초나 중엽으로 추정). 참고로 최근에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오답 해설>

① 서울 흥인지문은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물이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문 중의 하나로 동쪽의 대문이다. 속칭 동대문으로 한성도성의 축조와 함께 태조 5년인 1396년에 처음 지어졌다.

③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의 목조 건축물이다(고려 중기, 13세기 건립 추정).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함께 주심포 양식*을 갖추고 있다. 단층 팔작지붕이며,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 있는 양식을 말한다.

④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물이다(15세기).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목판 보관용 건축물로 경남 합천군 가야산에 소재한다. 참고로 15세기에는 궁궐과 도성 건축, 사찰 건축이, 16세기에는 서원 건축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다.

17 - 독립 협회

문 1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가)을/를 만들었다. (가)은/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

- ① 「교육 입국 조서」를 작성해 공포하였다.
- ②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 ③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④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정답> ②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가)을/를 만들었다. (가)은/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독립 협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6.7).

독립 협회의 주도로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이 세워졌다(1897.11).

오답 해설>

① 교육입국 조서는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이다(1895.2).

*조칙(詔勅): 임금의 신하에게 내리는 글의 총체(한문 문체의 하나). 조령, 제고하고도 한다. 임금의 말[명령]을 문서로 발표하는 것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로 보면 된다.

③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고종이 발표).

④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7년 2월의 일이다(~1908.7). 국채 보상 운동 기성회가 조직되어 이 운동을 이끌었다.

18 - 쌍성총관부 수복

문 18. (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권당이 만들어졌다.
- ②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③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었다.
- ④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정답> ③

'무신 정권이 (최종적으로) 몰락'한 것은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의 일이다. 공민왕이 즉위한 것은 1351년의 일이다.

(철령 이복 땅을 관할하고 있던) 쌍성총관부가 수복된 것은 공민왕 재위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만권당이 만들어진 것은 충숙왕 원년인 1314년 이 일이다. 당시 충선왕은 아들인 충숙왕에게 선양한 후 원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 ②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하여 개경에) 정동행성을 설치한 것은 충렬왕 6년인 1280년의 일이다. 이후 공민왕 5년인 1356년에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됨으로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 ④ 『제왕운기』가 [이승휴(1224~1300)에 의해] 저술된 것은 충렬왕 13년인 1287년의 일이다.

19 - 고려의 경제 상황

문 19. 밑줄 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농민은 소를 이용해 깊이갈이를 하기도 했으며,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 나라의 말기에는 직파법 대신 이앙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암에 의해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도 소개되었다.

- ①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 ②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 ③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 ④ '소'라는 행정구역의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정답> ②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농민은 소를 이용해 깊이갈이를 하기도 했으며,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 나라의 말기에는 직파법 대신 이앙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암에 의해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도 소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나라'는 고려임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농상집요』 등의 농서가 (이암에 의해) 수입되어 발달된 농업 기술이 보급된 것은 고려 말의 일이다(1372, 고려 공민왕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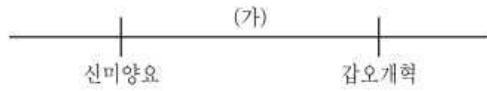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뀐 것은 조선 시대의 대동법 시행 때이다(1608, 광해군 즉위년).

오답 해설>

- ①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옳은 설명이다. 고려 시대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 ③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토지세). 참고로 공전의 소작료는 1/4, 사전의 소작료는 1/2 이었다.
- ④ '소'라는 (특별) 행정 구역의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향, 부곡, 소 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비해 과도한 수취 부담을 졌다.

20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문 20.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 ① 을사늑약 체결
- ② 정미 의병 발생
- ③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정답> ④

'신미양요'가 있었던 때는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 5월의 일이다. 갑오개혁이 시작된 때는 고종 31년인 1894년 7월의 일이다.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19년인 1882년 5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을사늑약이 강요된 것은 1905년 11월의 일이다 (1905.11.17).
- ② 정미의병이 발생한 것은 1907년 8월의 일이다 (고종의 폐위와 정미 7조약의 부수 비밀 각서에 따른 군대 해산 직후).
- ③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 (1832~1903)는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 도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 이 상 -